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분기점이 될 민선 5기 지방정부가 7월1일 출범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자치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재인식해야 한다.



블자 세상보기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 참여가 성패 가른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주민대표인 지방의회가 소신을 제대로 펼칠 수 없고, 지역특성에 맞는 능력발휘가 어렵다고 해도,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일이야말로 민선5기 지방정부의 최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초과일. 당시는 여의도광장에서 법요식을 마치고 조계사까지 연등행진을 했다. 행렬 중간에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한 일이 있었는데, 덕분에 제등행렬은 엉망이 되었다.



사부대중 갈럼

정용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불교계 NGO의 존재가치

기독교계는 현재 불교계마공원 반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기총까지 나서 재정지원 중단을 외치는 행편이니, 쉽사리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방정부-지역경제-지역시민사회'에 의한 형식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3자가 공히 동등한 권리와 책무성을 동시에 갖는 네트워 크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행위를 통한 선거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행위를 통한 선거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한 것이다.

사설

이주민 120만명 시대

이주민이 120만 명에 이른다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09년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은 110만6884명, 불법체류자가 약 17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한다.

지원과 그들의 자녀 교육문제는 시급한 사회적 현안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마하이주민지원센터가 지난달 30일 이주민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다문화사회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다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743개(2009년 5월)로 조사됐다.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자체 주도하는 인각사 개발 안된다

잘 아시다시피 군위 인각사는 일연 스님이 주석하며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곳이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 단군신화를 실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원형(原型)을 일깨워주었다.

헤서는 논의하지 않고 개발논리에 전도돼 관광자원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자체의 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군위군이 추진하는 '삼국유사 테마파크' 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면 큰 문제다. 지자체는 관광자원화의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할 것이다.

2006년 발굴조사에서 대형 목탑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후 실시된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6200/ 대표팩스(02)737-0697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호기과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